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이 명 희 · 송 원 영*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본 연구는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퍼머여부, 헤어길이 및 헤어칼라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준실험방법으로서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2 \times 3 \times 3$ (헤어스타일 \times 헤어길이 \times 헤어컬러)의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지각대상자로서의 자극물은 20대 여성의 상반신의 모습으로서 헤어스타일을 변화시킨 것이다. 모델의 얼굴은 타원형 윤곽이며, 의복은 라운드 네크라인의 흰색 원피스를 착용하였다. 자극물의 제작은 여성 모델의 사진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CAD시스템으로 헤어스타일을 바꾸었다. 헤어스타일은 퍼머머리 및 생머리와 헤어길이를 변화시켰으며, 헤어길이는 짧은 머리, 중간길이(턱밑 1cm 정도), 긴 머리를 사용하였다. 헤어칼라는 6가지 헤어스타일을 검정, 진갈색, 밝은 갈색으로 변화시켰으며, 모델의 배경은 연회색이었다. 시각적 평가에 사용된 의미미분척도는 22개 문항의 7점 양극 형용사쌍이었다. 피험자는 서울 지역의 18~55세 여성 343명으로서 1명의 피험자가 2개의 자극물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때 표집된 피험자는 연령에 의한 할당표집에 의하여 각 자극물에 배치되었으며, 1개의 자극물에 36~42명이 반응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요인분석,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 산출, 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의 헤어스타일 및 헤어컬러는 요인분석 결과 품위, 사교성, 매력성, 여성성의 4개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품위 요인에는 단정한, 지성적인, 깔끔한, 품위 있는, 우아한 등이 포함되었고, 사교성 요인에는 적극적, 능동적, 사교적 등이 포함되었다. 매력성 요인에는 섹시한, 아름다운, 매력 있는, 세련된 등이 포함되었고, 여성성 요인에는 여성적, 따뜻한, 부드러운 등이 포함되었다. 4개 요인의 누적백분율은 65.27%였다.

퍼머여부, 헤어길이 및 헤어컬러에 따른 인상형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주효과에서 퍼머여부는 품위, 사교성, 매력성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생머리는 퍼머보다 품위 있게 평가되었고, 퍼머는 사교성과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헤어길이는 사교성, 매력성, 여성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사교성은 짧은 머리가 가장 높았고, 매력성과 여성성은 긴머리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헤어컬러는 4개 차원에 모두 영향을 주었다. 검정색 헤어컬러는 품위가 높았고, 밝은 갈색은 사교성과 매력성이 높았으며, 진갈색과 검정색은 여성성이 높았다.

사교성과 매력성은 퍼머 여부와 헤어길이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중간 길이의 경우는 생머리가 퍼머보다 매력성과 사교성이 훨씬 더 낮았다. 퍼머 여부와 헤어컬러는 품위와 사교성 평가에 대해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진갈색의 경우는 생머리가 퍼머보다 품위와 사교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헤어길이와 헤어컬러는 여성성 평가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검정색 머리는 헤어길이에 따라 여성성 평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검정색 긴 머리는 가장 여성적이며, 검정색 짧은 머리는 여성성이 가장 낮았고, 밝은 갈색은 길이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매력성 평가는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검정색 생머리는 길이에 의한 매력성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긴 검정색 생머리가 가장 매력성이 높고 중간길이의 검정색 생머리는 매력성이 가장 낮았다. 밝은 갈색 퍼머머리는 머리길이에 관계없이 매력성이 높은 편이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긴머리와 퍼머머리는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며 중간길이의 검정색 생머리는 가장 매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R^2 의 설명력을 비교하여 보면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헤어칼라에 의해 특히 사교성과 품위에 관한 인상이 크게 영향을 받는 편이었다.